

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조미료에 대한 불편한 진실

나는 주로 전후 한국음식의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강연한다. 주로 시민 강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요 테마 중의 하나가 '한국인의 입맛'이다. 감칠맛이 중심이 되는 맛의 추구는 전세계적으로 비슷하는데, 한국도 오랜 세월동안 더 많은 감칠맛을 추구해왔다. 맛의 역사는 곧 감칠맛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감칠맛을 더 싸게 더 많이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노정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래서 강연 초입에 이런 질문을 드려곤 한다.

"돼에서 속칭 뽕 같은 하얀 가루, 즉 엠에스지(MSG)를 쓰고 있나요?" 열이면 한 명 정도도 안 된다. 나아가 "그럼 하얀 엠에스지는 쓰지 않지만 이른바 복합조미료라고 하는 다시다나 감치미 같은 것을 쓰는 분은요?"

역시 한두 명 정도 손을 든다. 다시 말해서 거의 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민 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대체로 음식에 예민하고 민도가 높아서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더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70년대 후반부터 80, 90년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하얀 가루, 즉 엠에스지를 화학조미료라고 해서 경멸시키는 풍토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화학'이라는 말은 당시 부각되던 공해나 농약 등의 부정적 의미와 결합되어 마치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물질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 좀 달라졌지만 크게 인식이 바뀌지는 않았다. 앞의 사례가 어느 정도 그런 정서를 반영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시민들이 엠에스지 같은 인공 조미

료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근 몇 해의 통계를 보면 한국의 1인당 인공조미료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가 있었다. 다시 말해 다들 '안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먹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국내 생산량이 줄었다는 통계는 의미가 없다. 생산회사들이 공장을 외국으로 이전했거나 외국 제품(주로 동남아와 중국)을 수입하고 있어서다. 이른바 착시 현상인 것이다. 너도나도 문제가 있다고 안 먹으려 하고, 먹더라도 아주 소량을 쓴다고 하는데 소비량은 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뭘까. 이는 우선 외식과 간편 가공식, 배달의 증가 때문이다. 외식은 사실상 90퍼센트 이상의 식당에서 위의 조미료를 한 종 이상 사용한다. 고급호텔도 예외는 아니다. 쓰지 않는다는 식당도 실제 조사하면 '이미 함유되어 출시된 기타 조미료'에 엠에스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치킨스톡, 골소스, 요즈음 많이 쓰기 시작하는 조립 간장, 양념장 등에는 상당수가 조미료 포함이다. 라면은 어떤가. 라면은 아이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주 예민하다. 라면 생산회사들이 너도나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여 엠에스지를 거의 퇴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꼼수다. 국미가 잘 알고 있으며 바로 그 인공조미료의 대명사적인 엘글루탐산나트륨은 넣지 않는 대신 이노신산나트륨, 구아닐산나트륨 등의 여타 조미료를 넣는 경우가 많다. 보통, 조미료는 이 세 가지 조미료를 배합하여 쓰고 있는데, 엘글루탐산나트륨만 시민들이 알고 있어서 생기는 해프닝이다.

고가의 자연 조미료를, 예를 들어 새우가루, 표고, 채소, 고기 등에서 추출한 조미료만 넣는다면 라면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진다. 또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오랫동안 길들여진 라면 맛과 달라 판매에 애를 먹게 분명하다.

라면만 봐도 이런 속사정이 있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나트륨'은 매우 다양하게 쓰인다. 대부분의 가공 식품에는 거의 들어간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심지어 음료나 소주 등에도 쓰인다. 맛을 좋게 하고, 불편한 맛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인공조미료라는 말도 사실 애매하다. 인공이란 사람이 일부러 만들었다는 뜻인데, 자연조미료도 사람이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공업적 설비를 가지고 가공하므로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물론 이런 이름을 붙인 과정은 분명하다. 1930년대 일본에서 개발되어 한국(조선)에도 판매되기 시작한 '아지노모도'와 그 유사물질에 대해서 기존의 자연적인 조미료와의 차이를 가르는 이름인 까닭이다.

한 가지 제언을 하자면, 이렇게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혼란할 바에는 가공식품에 표기하듯 식당과 배달음식에 인공조미료 사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물론 혼란이 생기겠지만, 과학적으로 조미료 문제를 이해시키고 공부한다는 전제를 깔고나면 해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상당수 식당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21세기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우리가 이 '조미료' 사태에 미몽을 헤매고 있어서야 옳은 것 같지 않다. <음식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조형훈 조선대치과병원 원료보존과 교수

근관치료와 콘빔 전산화 단층촬영

장문의 내용을 토대로 근관치료 영역에서 CBCT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CBCT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2차원 방사선사진에 비해 치근단부위의 병적 변화를 보다 일찍 탐지할 수 있다. 2차원 방사선사진에서는 대개 이틀뼈의 바깥쪽에 있는 치밀한 뼈까지 확장될 정도로 병소가 커져야 탐지되는 경우가 많으나, CBCT에서는 여러 단면으로 분리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치근단 병소 탐지에 유리하다. 특히 환자의 증상이 존재하지만 원인이나 원인치를 찾기 어려울 때 또는 근관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아 및 주변 조직에 심한 탈구나 치근 파절, 치조골 파절 등이 발생한 경우 치근단 방사선 사진이나 교합방사선 사진 등 2차원 방사선사진 방법으로 진단이나 탐지가 어려운 경우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CBCT를 활용하면 치아 및 주변 조직의 복잡한 외상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세 치근단 수술은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미세 치근단 수술을 계획할 때 근관치료의 실패 원인 및 치근단과 신경관이나 상악동과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3차원 이미지가 필요하다. 특히 CBCT를 통해 미리 뼈의 두께, 치근의 해부학적 구조, 치근의 길이, 치근의 경사도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근관치료 영역에서 CBCT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CBCT 활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방사선 방호에 대해서 먼저 고려해야 한다. CBCT를 촬영했을 때 인체에 가해지는 방사선의 양은 일반 CT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촬영 장비나 모드에 따라 많은 선량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CBCT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임상적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촬영해야 한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무분별한 CBCT 촬영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인정해주는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심사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근관 치료과정에서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CBCT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최근 개발된 판매패고 있는 CBCT 장치들은 기존의 장비에 비해 조사선량은 낮으면서 해상도가 높고 선량도 낮아져서, 방사선 방호의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므로 필요한 경우 CBCT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근관치료 영역에서 CBC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난이도가 높거나 진단이 어려운 많은 치아들을 좀 더 잘 치료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관치료와 관련된 CBCT가 보험 급여로 인정되는 세부 기준들이 좀더 확대돼 자기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환자들과 환자들의 치아를 살리고자 하는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유백순 동화작가

두꺼비가 무사히 살아가기를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우리 집이 두꺼비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산을 허물고 지었던가 보다. 게다가 아파트 주변에는 도로를 여기저기 닦아 놓았으니, 겨울잠에서 깨어난 두꺼비로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니겠는가?

이후, 도로 한쪽에는 '두꺼비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서행 부탁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에도 두꺼비 소식이 올라오고, 장갑을 끼거나 쓰레받기를 가져와 두꺼비를 안전하게 건너 주는 주민들도 많아졌다. 수시로 자전거로 저수지 주위를 돌며 맨손으로 두꺼비를 구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두꺼비가 로드킬을 당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봄이 오면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는 산에서 내려와 저수지에 알을 낳는다. 알이 부화해서 자란 새끼 두꺼비들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회귀본능이 있다. 이런 약 조건에서도 운 좋게 길을 건너 저수지에 간 녀석들이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해 자란 새끼 두꺼비들이 다시 산으로 돌아갈 즈음이 되면, 이 도로는 다시 두꺼비들이 생사를 걸고 건너가야 하는 위험한 길이 되고 만다. 그동안 이곳에서 별일 없이 잘 살아왔을 두꺼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이유다.

그렇게 두꺼비들이 목숨을 걸고 길을 건너 저수지를 오고 간 지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사이 개체수가 줄었다는 걸 증명하듯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도 첫해에 마주했던 만큼의 두꺼비는 보이지 않는다. 이사 오기 전에도 공원에서 두꺼비를 마주치는 일은 많았다. 하

지만 그 두꺼비들에게 미안하던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공원에는 차도 다니지 않았고, 끔찍한 일을 당한 두꺼비의 모습을 마주친 일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곳의 상황은 다르다. 우리 인간들이 오랫동안 그들이 오가던 길을 빼앗은 셈이니까.

두꺼비는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골이라서 모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모기에 물리는 일도 거의 없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두꺼비가 모기의 유충을 먹어 없애준 덕도 있을 것이다. 또한 두꺼비는 먹이사슬의 중간부에 위치하여 두꺼비 개체수가 감소하면 먹이사슬의 위아래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두꺼비들이 아파트를 짓기 전, 도로가 닦이기 전의 세상으로 돌려놓으라고,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의 죽음에 대책을 마련하고 보상하라고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친다면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아파트를 허물고 깬 산을 다시 불리고 닦아 놓은 도로를 원상복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파트 주변의 전원주택 단지에는 아직도 빈 땅이 많고, 지금도 그 땅에는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나면 두꺼비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두꺼비가 다닐 길 정도는 내주어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앞서 이런 일을 겪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찾아보고, 두꺼비와 함께 살아가길 서둘러 마련했으면 좋겠다. 두꺼비들이 길에서 끔찍하게 죽는 일 없이, 무사히 잘 살아가길 수 있게 간절히 바란다.

社說

맞춤형 지원으로 악화된 수출 환경 개선해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속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수출기업들도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수출환경 전망'에 따르면 응답기업 131개사 중 37.4%가 올해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수출 환경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 비중이 1년 사이 4.9%포인트 증가했고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업종이 대부분이다. 전기전자(52.9%), 금형 및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52.6%), 철강(36.4%) 등 주력 업종의 비관적 전망 비중이 모두 평균치를 상회했다.

현재 겪고 있는 애로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97.4% 기업이 수출 차질을 겪고 있다고 응답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은 수출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인

상, 환율 변동 등의 리스크를 꼽았다.

더구나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가 자신들의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업의 66%가 수출 위협 요인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지 15%만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 지역 수출기업들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권 대기업과는 다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 우선 지역 수출기업들이 원하는 물류비에 대한 통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해외 바이어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글로벌 망을 갖춘 무역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 세미나, 무역인력 채용 지원 등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매년 증가하는 산불, 장기 대응책 시급하다

식목일을 앞둔 지난 2·4일 충남 홍성군과 순천시, 함평군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5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과 소방청, 지자체 직원들이 사력을 다해 불길을 잡았다. 그제 오후부터 때마침 봄비가 내리면서 산불진화 관제자 모두 재발화와 잔불 정리, 뒷불 감시의 염려 없이 안도의 한숨을 내릴 수 있었다.

3·4일 이틀 동안 합평 475ha, 순천 150ha 등 총 625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추극장 면적으로 따지면 875개 규모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지만, 함평군 신광면 북분자주 공장이 잿더미로 변하는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산불은 매년 40-50건 수준이다. 올해는 4월까지 총 47건의 산불이 일어났다. 산불로 인한 피해면적도 2018년 6.76ha에

서 지난해 62.85ha로 급증했는데 올해는 지난 1일까지 81.73ha를 기록했다.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장기적인 대형 산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산림청의 '2020년 산림 기본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전체 산림 면적 중 침엽수림의 비율은 각각 41.9%(7935ha)와 43.9%(30만1854ha)에 달한다. 소나무 등으로 구성된 단순림 대신 불에 잘 타지 않는 내화(耐火) 수림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산불진화에 효과적인 대형 헬기를 확충해야 한다. 진화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임도 개설도 필요하다.

또한 취약한 야간이나 험준한 산악지형의 산불 진화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ICT(정보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장비로 적극 도입, 활용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건데, 마음으로 봐야 더 잘 보인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춰두고 있어서야."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아마도 '어린왕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책에 등장하는 '구름'을 기억하고 있는 책도 드물 것이다. 사랑하는 장미꽃을 남겨 놓고 소행성 B612를 떠나 지구로 여행을 떠난 어린왕자는 상상 속

여러 별을 여행하며 많은 이들을 만난다. 권위가 모든 것인 '왕', 찬사만을 바라는 '허영꾼', 술꾼, 사업가, 지리학자, 여우 등을 만나며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새삼 우리를 돌아보게 만든다. 생텍쥐페리(1900-1944)의 '어린왕자'가 출간 80주년을 맞았다. 1943년 4월 6일 프랑스 갈리마르 출판사가 펴낸 '어린왕자'는 지금까지 500여 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됐으며 전 세계에서 2억 부 이상 판매됐다.

80주년을 맞아 나온 책자들이 눈에 띈다. 초판을 냈던 갈리마르 출판사가 펴낸

'어린왕자, 영원이 된 순간'(위즈덤하우스)은 미국 뉴욕 모건도서관과 박물관, 개인 수집가들의 소장품 350점을 수록한 책으로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그의 친필 원고와 습자, 수채화 원화 등이 담겼다.

또 '생텍쥐페리의 문장들'(마음산책)은 '어린왕자'를 비롯해 '인간의 대지' '야간비행' '남방우편기' 등 생텍쥐페리의 작품 속 글귀들을 모은 책이다.

작가이자 삽화가, 조종사였던 생텍쥐페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소설 같다. 2차 대전 중이던 1944년 7월 31일 정찰 비행에 나갔다가 적기에 피격돼 바다에 추락한 것인 '왕', 찬사만을

이 책들은 그물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필자가 걸려 올라오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이후 2008년에는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생텍쥐페리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는 독일 조종사의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좋은 책, '어린왕자' 80주년을 맞아 곁에 두고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신안 '퍼플섬' 만화도, 대원사 '어린왕자 선(禪)문학관'에서 어린왕자와 근사한 포즈를 취해보는 것도 좋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장 崔宰豪, and other contact information.